



기도의 어려움

박보경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에도 모두들 동의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도가 무엇인가?' 혹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만하고 무지하여 좌충우돌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자합니다. 고난의 시간과 광야 학교에서 나의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경험했던 것은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바르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1) 기도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성경적인 지식과 직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장로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직분이 자동적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거나, 기도의 권위나 능력을 더 해주지는 않습니다.

2) 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하거나 나의 성의와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결과적으로 기도하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올려드렸으니 이제 무언가 더 많이 기도하거나 금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기도에 더 큰 실망과 낭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불안과 염려와 불신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3) 마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는 급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 응답의 방법과 시간까지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때와 그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분의 방법으로 그 분의 때에 그 분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 합니다. 더불어 기도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기도한 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기도한대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초조해지거나 불안해합니다.

5)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방자 해지고 공허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매일의 삶속에서 실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나의 죄인 됨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게으름 입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인내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숙한 기도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세속적 쾌락에 물들어 있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무디어진 마음, 고난 중에 있을 때 등)들을 끊어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작은 헌신에서 비롯되며 마침내 이 작은 헌신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랜 순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 말씀과 함께 하지 않은 기도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기도와 삶을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1) 신비주의가 관을 치고 있는 요즈음은 더욱 이 부분을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분이시며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초월적이고 신비한 면을 제하고 나면 그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만을 구한다거나 그러한 체험이 있는 기도가 그렇지 못한 기도보다 훨씬 더 영적이며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병들게 하며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기도는 우리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신비한 체험을 동반하든 그렇지 못하든 늘 말씀으로 점검이 되어야겠습니다.

2) 중보기도든 자신을 위한 기도든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는 또 다른 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는 나

의 요구나 원함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고, 나의 죄는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교만과 아집은 부서지며, 낙심하고 찌들은 영혼은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속삭이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결국 우리는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받아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분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그 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 궁극적 단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면에서의 완성입니다."(오스왈드 챔버스)

넷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기도하기를 어렵게 합니다.

1)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책을 통해서 익히고 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물속에서 자동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 어떤 분은 "꼭 긴 시간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기도를 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니까 걸으면서 하는 것도 기도요, 설거지하면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며,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도 필요하고 구별된 장소도 필요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6:6)'고 하신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해놓은 시간이 없이는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복잡한 환경이나 분주한 자신의 내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린 사람은 지하철에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람의 얼굴이 다양한 만큼 기도의 방법이나 자세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만이 건강하다거나 옳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오해와 무지 때문에 좌충우돌 하면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유익했던 것은 그 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